

# 터키-그리스 난민 관련 독일 정계 대응

2020. 3. 16(월)

## □ 독일 정계 난민 문제 재점화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국경 개방 발표(2.28)
  - 유럽이 난민 문제를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자국 내 난민들의 EU 입국을 저지하지 않고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공개 선언
  - 2016년 3월에 체결된 EU-터키 난민협약에 따라 지원되는 EU 지원금이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집행되어 직접 집행을 원하는 터키 정부의 불만 고조
- 메르켈 총리, 터키의 난민 문제 해결방식 비난(3.2)
  - 베를린에서 열린 통합대표자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국경 개방 발표에 대해 터키 대통령이 EU의 난민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난민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EU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
- 제호퍼 내무부장관, 터키 수용 난민에 대한 독일 국경 개방 거부(3.3)
  - 제호퍼 내무부장관은 터키가 수용하고 있는 난민들에 대해 독일은 국경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고 다수의 터키 수용 난민들이 그리스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그리스 정부에 대한 지원을 약속
- 마스 외무부장관, 터키에 대해 EU-터키 난민협약 준수 요청(3.5)
  - 마스 외무부장관은 EU 특별 외교장관회의에서 터키의 난민수용을 평가하고 터키가 지고 있는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유럽연합의 터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터키에 대해 EU-터키 난민협약 준수를 요청

## □ 독일 연방의회, 녹색당 제안 난민 지원 프로그램 거부

- 독일 연방의회 제148회 본회의(3.4)에서는 녹색당이 제안한 「그리스에서 특히 취약한 망명 신청자를 위한 인도주의 입국 프로그램」에 대한 내무위원회 거부 결의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녹색당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
- 찬성 494(기민·기사당, 사민당, 자민당, 독일대안당)/ 반대 117(좌파당, 녹색당)

- ※ 「그리스에서 특히 취약한 망명 신청자를 위한 인도주의 입국 프로그램」 제안 배경
- 2015년 이후 터키 국경과 가까운 그리스 섬(Lesvos, Chios, Samos, Leros, Kos 등)으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들이 몰리면서 난민위기가 시작됨.
- 그리스 정부는 급격히 증가한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합동으로 난민수용소인 Hot Spot<sup>1)</sup>을 5곳의 섬에 구축, 운영함.
- 매년 급증하는 난민 수에 비해 난민이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유럽 국가의 망명 수용률은 저조한 실정으로 난민들의 그리스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그리스 5개 Hot Spot은 당초 6,30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2019년 8월 기준으로 24,000명 이상이 거주하여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
- 녹색당은 Hot Spot에서 거주하는 망명 신청자들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신청자들(단신 미성년 난민, 임산부, 단신 여성 난민, 심각한 심적 외상 환자 등) 중 5,000명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독일 정부가 받아서 망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안함.

#### □ 독일 대연정, Coalition of the Willing 구성해 미성년 난민 수용 합의

- 독일 대연정 파트너인 기민·기사당과 사민당 지도부는 3. 8(일) 저녁 회의에서 터키와 그리스 국경지역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EU 회원국 중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로 구성된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을 구성해 그리스에 있는 1,000~1,500명의 미성년 난민<sup>2)</sup>을 수용하기로 합의(독일에서 수용할 미성년 난민 규모는 미정)
- 독일 국민 여론조사, 터키와 그리스 국경지역 난민 EU 입국 허용에 대해 긍정적 의견 다수
  - 독일 제1공영방송 ARD와 Infratest dimap 공동 조사 결과(3.2-3 조사, 3.5 발표) 응답자의 57%가 터키-그리스 접경 지역에 모인 수 천 명 규모의 난민들의 그리스 입국을 허용한 후 EU 국가들이 분할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반대 41%)

1) 유럽난민지원청(EASO), Frontex, Europol 및 EU사법협력청(Eurojust) 의 공조로 유럽연합 회원국에 도착한 난민의 신원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문 포함 신상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설치

2) 단신 미성년 난민이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대부분 여아)